

## Remake를 최소화하는 기공과정의 노하우



**김창환** 용인 OK Line 치과의원 기공실

- 1987년 광주보건대 치과기공과 졸업
- 1999년 10회보철작품전시회 대상 수상
- Ivoclar BPS, Empress, Targis & Vectrics
- Degussa Milling technic 등 수료
- 현) 용인 OK Line 치과의원 기공실

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기공 작업 과정에서 일부는 무엇이 잘못되어서 또는 어디에서 에러가 생겨서 다시 재제작하는지도 모른 채했던 일을 또 하고 안 맞는다고 다시 해 달라면 또 하는 짜증나는 일이 반복된다.

진료실에서 인상체가 기공실로 전달되면 작업을 해야 할 모델인지 아니면 다시 인상을 채득해야 하는지 작업전에 판단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작업 과정에서의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.